

“1004섬 신안 새로운 미래, 담대하게 열어 가겠다”

박우량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8기 ‘행복한 군민’을 모든 정책 기조의 근간으로 삼고 군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목표를 세웠다. 창의적인 비전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1004섬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 가겠다는 포부다.

특히 햇빛(태양광)연금, 바람(풍력)연금, 물결(조력)연금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평생연금 수혜 지역을 확대해 나갈 목표다. 개체 굴 양식, 바나나 하우스와 같은 친환경 농·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 사업도 적극 발굴에 나선다.



주요 공약

▲1읍면 1뮤지엄 조성 ▲뮤지엄별 문화예술 축제의 연중 개최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참여 30% 의무화 ▲태양광 주민이익공유 확대 ▲친환경 유망미래생물배양센터의 증설 ▲벼농사의 규모화 및 밭농사의 기계화 지원 ▲김양식, 왕새우양식, 개체굴양식 전락산업 육성해 소득기반 창출 ▲천일염 품질 등급제 도입 ▲갯벌 모실길 1004km 단계적 (2026) 조성 ▲자연 친화형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확충 ▲초·중·고등학교의 공영버스 무료이용 제도화 ▲연륙·연도교 조기 완·착공 추진 ▲전국 최초의 ‘버스 공영제’의 완벽한 정착 ▲흑산 소형공항 조속한 착공 ▲압해대교-신장 4차선 도로 확장사업 준공

박우량이 걸어온 길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목포대 명예교육학 박사 ▲지방4급 (현7급) 공채 ▲일본 오사카대 해외파견 ▲내무부장관 비서실장 ▲행정부 차지운영과장, 행정제도과장 ▲경기도 하남시 부시장 ▲경원대 총동문화장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발견협의회 회장 ▲민선 4기, 5기, 7기 신안군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결실

박 군수는 민선 7기를 뒤돌아보며 “1004섬 신안군의 풍부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창출시키고 주민들의 행복 지수와 만족도를 크게 높여왔다고 자부했다.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결실을 거둬 지난해 4월 안좌도, 자라도 주민들에게 분기별 1인당 51만~12만 원의 배당금을 첫 지급하는 성과를 냈다.

지금까지 총 6,700명에게 1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내년에는 군민의 44%인 17,000명이 연 6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군수는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신안군의 인구 유출을 막고,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이 지난 5월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백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보기와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04섬 신안 발전 청사진 수립

박 군수는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섬마다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하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씀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우수관광 마을, 한국 관광의 별 등 잇따른 낭만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퍼플섬을 비롯한 아름다운 섬 가꾸기도 씀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섬마다 자기만의 색깔로 매력을 뽐내야 경쟁력이 있다는 확신으로 신안군 343개 마을 모두를 자기만의 색깔로 디자인해 1004섬 신안이 발전하는 비전을 수립 중이다.

섬이 지닌 생태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 컬러 마케팅을 극대화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제2, 제3

신재생에너지 지자체 혁신모델 평가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인프라 개선

유엔 주목 ‘1도 1뮤지엄’ 정책 지속

연륙·연도교 건설 지속적으로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공영버스 무료화



의 퍼플섬 도약도 꿈꾼다.

박 군수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군민 소득 증대시책 지속 추진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 ▲1도 1뮤지엄 사업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기본소득 ▲해양 문화 예술의 소프트웨어 구축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은 따뜻한 주민복지 ▲주요 지역개발 기반 사업 중단 없는 추진 ▲명문 교육 육성 ▲늘 푸른 생태환경 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현 등을 꼽았다.

박 군수는 우선 꽃이 만발한 섬, 숲이 울창한 섬, 겨울에도 꽃피는 섬을 만들어가는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국내는 물론 해외 여행자를 또한 사계절 내내 1004섬 신안을 찾아오게 하겠다는 취지다.

섬 하나, 하나의 독특한 특성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를 심고 숲을 일궈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는 “해양, 관광자원과 녹색공간을 연계한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만들어 휴식을 제공하고 힐링의 섬 투어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늘 푸른 생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

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임기동안 섬 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탁월한 가치를 활용해 사람이 사는 모든 섬에 아름다운 정원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꽃 문화 축제’도 열겠다”는 방향도 잡았다.

획기적인 교통복지 실현과 주민들의 24시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박 군수는 “섬에서 교통은 복지이자 경제다”며 “맞춤형 교통복지와 연륙·연도교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편리한 신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여행자든 신안군민이든 누구나 신안 어느 곳을 가더라도 편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배려다.

아울러 임대 추포·비금과 안좌 자라·장산 간 연륙·연도교 조기 완공과 장산-신의 연도교 조기 착공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또, 흑산면에 소형공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박 군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의 갯벌이 곧 한국의 갯벌이라는 자긍심으로 갯벌의 보전과 관리, 갯벌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겠다는 복안도 분명히 했다.

세계적인 해양 생태의 중심, 신안 만들기과 갯벌, 해안, 무인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환경 세계 보금 확대도 급선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은 국제적 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철새들의 휴식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인의 소중한 유산인 신안 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존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1도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 추진
박 군수는 하나의 섬에 하나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만드는 ‘1도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를 통해 군

민의 문화 소외 극복에 앞장서고, 섬의 환경과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예술적 지평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민선 4기부터 저널노예미술관, 동아시아 인권 평화미술관, 인피니도뮤지엄, 플로팅뮤지엄, 세계조각박물관 등 24개의 크고 작은 뮤지엄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12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박 군수는 문화예술과 관광은 주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공해 없는 소득 사업이자 미래산업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

유엔 등 세계가 인정하는 ‘1도 1뮤지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알찬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초도에 대지미술관, 비금 바다미술관, 자은 인피니도 조각미술관을 비롯해 안좌도에 플로팅 뮤지엄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뮤지엄을 4개 이상 조성한다.

◇정주 여건 개선·복지시설 확충 노력

박 군수는 1004섬 신안을 균등한 복지와 수준 높은 교육의 요람으로 가꾸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60개 마을에 노인회관을 이용해 공동 급식 지원을 활성화하고 노후화된 마을회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편안한 삶 제공에 나선다.

각 읍·면별에 1개소 이상의 소규모 요양원을 건립하고 의료 취약 보건 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지역의 아이들이 국제화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교육 공간도 운영에 들어간다.

끝으로 박 군수는 “더 창의적으로, 더욱 혁신적으로 1004섬 신안을 가꾸겠다”며 “군민들이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 신안 산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함께해 주시라”며 “제 모든 혼과 열과 성을 바쳐 ‘1004섬 사는 자부심’을 드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주열 기자

(왼쪽부터)

▶박우량 신안군수가 최근 열린 도초 수국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최근 농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에 대해 답하고 있다.

▶1004뮤지엄파크 수석정원 전경.

